



우리, 함께해요!

노숙인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빈곤계층입니다.  
의지할 가족도, 함께 할 친구도, 도와줄 이웃도 없는  
가장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 처한 분들입니다. 더구나  
장애나 질환, 가족해체등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  
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지만 가야할 길! 힘을 주십시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와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 노숙생활도 삶의 한 형태  
로, 사회적 실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은 멀고도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만큼 세상은 변합니다.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29-96호 2층

국민은행 072-01-0380-157

• 노실사 사랑방 Tel : 2634-4331

#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nosilsa@empal.com

<http://www.homelessaction.or.kr>





## 주요활동

### • 단신생활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노실사사랑방' 운영

실직한 분, 가족관계의 어려움으로 집을 나온 분, 자립의지를 가지고 사회복귀를 위해 애쓰시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받는 분들이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일정 금액을 받고 운영되는 유료숙박소입니다.

### • 계간지 '떨거등이' 발행

Homeless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의 구체적 사례(인신매매, 신분 도용과 금융사기, 고용과 주거, 의료로 부터의 배제 사례 등)와 Homeless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발행됩니다.

'떨거등이'란 의지하고 지내던 곳에서 맨손으로 쫓겨난 사람을 뜻하는 말로 Homeless를 순우리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 • 노숙인추모제 (Homeless Memorial Day) 개최

### • 한국, 일본, 홍콩과의 국제교류회 참여



## 단체 속의 단체

### 노숙인 인권 공동 실천단

#### 노숙인 인권공동 실천단은요?

기존 거리노숙인 상담지원체계의 사각에 있는 '틈새지역 노숙인'들을 상담/지원하고,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나요?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연구원, 노숙인 당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남산, 남대문, 회현역 등 틈새노숙지역 야간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활동은요?

##### • 목요 야간 아웃리치

매주 목요일, 야간거리상담을 통해 노숙인과 교류 활동

##### • 주거지원 활동

단독 주거생활 가능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 노숙인 인권옹호 활동

노숙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및 대책강구

##### • 여가 활동 - 영화보기, 산행하기

우리 함께하세요!



Homeless Memorial Day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을 추모하는 촛불, 2002.12.23)

'노숙인 보호법 제정촉구'를 주장하며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창립대회 (2001.12.12)



'노숙인도 우리의 아웃입니다' 대시민  
캠페인 (2002.06.10,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의료구호비 중단 방침 규탄대회 (2004.5. 20)



쪽방철거 반대집회 (2004.7. 7)



## 보내는 사람

□□□ - □□□



## 받는 사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9-96호 2층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1 5 0 - 9 0 0

# 회원 가입서 양식 (\*표는 필수 입력입니다.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 : [전] (일터) (휴대폰)

E-mail :

직업 :

주민번호 :

은행 :

예금주명 :

\*개좌번호 :

\*예금주 주민번호 :

\*납부금액 :

\*출금일 :

\*후원구분 :

\*기입동기 :

\*회원구분 □ CMS회원(자동이체) □ 일반회원

노숙인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차별과 무관심, 증오, 구별 등 한국사회에서 배제하고 통제하려는 노숙인들의 복지와 인권,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로서 소수자들의 권익을 개선하고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임을 천명한다.

위 단체의 활동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가입합니다.  
200 년 월 일  
(서명/인)

※ 위 47자 중 본인이 납부한 회비의 사용처를 지정하실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으면 「노실사 일반 활동 후원」으로 사용됩니다.

2001. 04.

노숙인 복지 실무자협의회 창립

2001. 12. 12.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노실사) 창립

2001. 12. 14.

제1회 노숙인(Homeless) 인권문화제 개최

2001. 12. 21.

2001 노숙인추모제(Homeless Memorial Day) 개최

2002. 04. 03.

'노숙인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시민 캠페인 활동

2002. 06. 03.

주요 노숙지역 상담 및 진료활동 시작

2002. 11. 05 ~ 11. 16.

노숙인 인권침해 극복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2002. 11. 05.

단신생활자 주거지원을 위한 노실사유료사랑방 개소

2002. 12. 23.

2002 노숙인 추모제(Homeless Memorial Day) 개최

노숙인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차별과 무관심, 증오, 구별 등 한국사회에서 배제하고 통제하려는 노숙인들의 복지와 인권,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로서 소수자들의 권익을 개선하고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임을 천명한다.

2001년 12월 12일 창립선언문 中